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강원도 영월군
- 영월석정여자중학교



2017. 7

조*지

저는 지난번 해남 지역아동센터에 이화봉사단으로 다녀온 뒤 영월 석정여자중학교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았지만, 도착한 뒤 팀원들과 밤마다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캠프에 활동하는 친구들 중 큰 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친구도 물론 있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첫 날 그리고 둘째날 이후로 멘토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많이 다독여준다는 것을 깨닫자 멘티들도 마음을 열어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많은 얻어갈 것을 안겨준 캠프던 것 같습니다.

송*린

영월 석정여자중학교에서의 교육봉사는 제가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가는 체험이었습니다. 5일간의 일정이 시작하기 전 했던 걱정과 반대로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열심히 참여해주었고 그 덕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꽤 다양했던 변수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쓰고 진로를 생각해보았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높은 자존감과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타인과 자신의 꿈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데에서 오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팀원들과 같이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여러 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교육봉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면에 대한 여러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프로그램 안팎으로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배우며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점이 있다.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봉사. 이번 봉사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다.

우선 내가 담당했던 2조 아이들을 비롯한 열네살 영월 소녀들과 함께 하는 내내 나의 열네살 시절을 복기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열네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많이 힘들어 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질고 가혹하게 굴었다.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고 보니 열네살은 참 어리고 여린 나이인 것 같다. 그런 열네살의 나를 마주하며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봉사하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함께 한 동료에게서도 힘을 얻었다.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 덥고 지칠 법도 한데도 웃겼다. 그런 동료들과 함께하니 나도 덩달아 긍정적인 힘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참 감사한 시간, 감사한 사람들이다.

최*은

직전까지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가르쳐야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도 참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너무도 순수한 웃음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있었고 기분좋은 분위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때없이 맑고 깨끗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고,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대학 공부에 빠져만 있었던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행하니 정말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제가 배운 것도 참 많았고,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